D. H.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차 례〉

1. 왜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인가?
2. 로렌스의 아시아관
3. 로렌스의 아프리카관 및 남아메리카관
4.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과 정치관
5. 로렌스를 벗어나기

【국문초록】

이 글은 D. H. 로렌스가 서구문화에 항거하면서도 비서구문화에 대해서는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 오리엔탈리스트였고, 그의 오리엔탈리즘이 그의 반민주주의와 남녀 성관계의 우열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한다. 로렌스가 비판했다는 서양문화란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이며, 그가 제시한 '소중한 비전'이란 반민주주의와 반사회주의, 파시즘과 제국주의, 귀족주의와 불평등주의, 남근숭배주의와 남근조종주의임을 설명한다. 이 글은 그러한 로렌스의 동양 이해를 비판하고 실상 '파괴적 비전'인 그의 문학을 거부하며 그가 비판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 이 글은 2012학년도 영남대 연구비 지원을 받음.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더욱더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렌스는 동양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가진 제국주의자이자 오리엔탈리스트인데도 그러한 비판은 없었다. 서양에서도 그러했고 서양을 모방한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은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 식민지해방운동 등이 동시에 진행된 20세기 초에 가장 반동적인 파시즘을 보여준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주제어: 로렌스, 오리엔탈리즘, 불교, 동양, 파시즘

1. 왜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인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에 여러 가지로 공감하면서도 그가 다룬 많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작가들 중에 왜 D. H. 로렌스가 없는지 항상 의문이었다.[2] 왜냐하면 D. H. 로렌스의 작품에는 동양을 오해하거나 폄훼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로렌스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의 동양인처럼 수천만 명이 무리지어 살아가는 인간들을 나로서는 도저히 너그럽게 봐 줄 수가 없었다. 수천만 마리가 무리지어 살아가는 것은 해충뿐이다. 보다 고도화된 종은 천천히 번식해간다. … 그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성에 차지 않을 정도이다.[3]

로렌스의 작품에 나오는 동양의 묘사는 항상 그렇게 '해충'같은

---

1)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2)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Peter Widdowson이 편집한 *D. H. Lawrence,* New York: Longman, 1992에도 오리엔탈리즘 내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차원에서 논의한 글이 없다.

3) D. H. 로렌스, 김진욱 역, 『아론의 지팡이』, 서울: 생각하는백성, 1996, p. 162.

존재로 묘사될 뿐인데, 겁쟁이라는 것 외에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20세기 영미소설에서 동양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또 있을까? 이러한 묘사에 대해 그것은 작품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소위 '지도자 소설' 내지 '정치 소설'의 하나로 여겨지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유색인종[4]은 '지도'해야 할 민중, 아니 로렌스가 이상적인 것으로 찬양하는 '정치'인 노예제도의 노예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 소설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다시 한 번, 일종의 노예제도를 채용해야만 한다고요. 민중 따윈 말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곤충이고 도구이며, 그들의 운명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상당한 살육이 있은 다음, 그들은 찬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건강하고 활력에 넘치는 노예 제도를 선택할 겁니다.[5]

집단적 살육에 의해 노예제도를 채용해야 한다는 로렌스의 주장은 그 소설에 나오는 유대인 차별 묘사와 함께 나치에 의한 유대인 살육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나치에 의한 유대인 살육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사회주의 섬멸을 떠올리게도 한다. 『캥거루』에서도 로렌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문제는 유색 인종의 과잉이라고 하며, 그곳이 사회주의가 되면 "녀석들도 버젓한 노동자가 되"어 "국민을 지배하고 혹사"할 것을 두려워하고 "얼간이 같은 유색인종들은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녀석들에게 자유를 안겨 주면 이쪽이 바보라고 여겨질 뿐"이라고 한다.[6] 따라서 "명령을 할

---

4) 『아론의 지팡이』와 『캥거루』는 1922년 로렌스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쓴 소설로 당시의 백호주의를 반영한다.

5) 『아론의 지팡이』, 앞의 책, pp. 443-444.

6) D. H. 로렌스, 김진욱 역, 『캥거루』1, 백성, 1999. p. 163.

수 있는 남자가 발견되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7] 파시스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

기이하게도 이러한 묘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반면[8] 로렌스와 동양 종교 특히 불교와의 관련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다.[9] 가령 석지현은 성 에너지를 강조한 로렌스가 밀교를 무의식적으로 이용한 위대한 작가이자 이 시대에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평했다.[10] 나아가 로렌스의 작품 전체가 밀교나 선불교, 힌두교와 요가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견해[11]나 동양의 불이일원론과 깊이 연관된다고 보는 견해[12]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로렌스가 자기 작품에서 직접 불교 등에 언급한 부분을 무시한 채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르게 나름의 종교 해석에 비추어 로렌스 작품을 보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13] 가령 로렌스는 그 대표작인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 남자 주인공이 인도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다른 사병들과 동성애를 한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를 언급한다.

---

7) 같은 책, p. 164

8) 로렌스의 정치의식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 평가받는 Peter Scheckner, *Class, Politics and the Individual : A Study of the Major Works of D. H. Lawrence, New York:*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1985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없다.

9) 민중에 대한 로렌스의 태도는 유교와 관련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없다.

10) 석지현, 『밀교』, 서울: 현암사, 1981, p. 102.

11) 조일제, 『D. H. 로렌스 문학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5, p. 301.

12) 강정석, 『D. H. 로렌스의 문학사상』,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2002, pp. 288-308.

13) 외국인이 자신을 무시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상적 관점에서 외국인의 문학이나 사상을 높이 받든다는 태도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 나는 육체적으로 그들과 접촉해야 했소. … 몸으로 그들을 알고 있어야 했기에 약간 부드러운 애정으로 그들을 대했소. … 그것은 깨달음의 문제요. 부처가 말한 것처럼 말이요. 그렇지만 부처조차 육체적인 깨달음은 피했소. 그리고 그 자연스럽고 육체적인, 부드러운 애정도 피했소. 심지어 남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남자다운 방식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바람직한 것인데 말이요. 그건 남자들을 정말로 남자답게 만드는 거요.[14]

위 구절은 로렌스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육체적 접촉의 깨달음, 특히 남자들 사이의 그것이 그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대에서 '남자다운' 남성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필이면 부처가 말한 깨달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로렌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로렌스에 대한 여러 연구 업적을 찾아보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 글은 그러한 무답의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해 시론으로 쓰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특히 주목한 것은 로렌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가운데 그를 동양 종교적인 작가로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등의 모든 종교의 차원에서도 그런 해석은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런 해석이 많이 나왔다.[15] 그런 종교적 해석은 로렌스 작품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동양과 로렌스를 바로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로렌스가 서양문화를 비판하고 다른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이 로렌스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로렌스에 대한 입문서에서 이재우는 그 머리말과 맺음말에서 다음과 같이 거듭 말한다.

---

14) D. H. 로렌스, 이인규 역, 『채털리 부인의 연인』2, 서울; 민음사, 2003, p. 226.

15) 가령 김인수, 「D. H. Lawrence와 Christianity」, 『경상대 논문집(인문 사회)』 19, 경상대학교, 1980, pp. 43-54.

> 로렌스는 기계와 정신과 지성을 강조하는 서구문화에 항거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육체와 생명의 우위를 강조한 점에서 그의 문학은 현대 문명에 대한 뜻 깊은 비판이라 할 수 있고, 그의 사상과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16)

로렌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세기 서양문학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려질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로렌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로렌스의 경우 그 '소중한 비전'이란 무엇보다도 성의 강조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글은 로렌스의 그 '소중한 비전'을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강조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듯이 로렌스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로렌스든 누구든 선입견 없이, 특히 서양의 평론가들이 내린 견해를 권위로 내세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독서와 비평,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로렌스가 서구문화에 항거하면서도 비서구문화에 대해서는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 오리엔탈리스트였고, 그의 오리엔탈리즘이 그의 반민주주의와 남녀 성관계의 우열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종래 여성주의 입장에서 로렌스를 반여성주의적이라고 비판한 논의들이 영미에서 나왔고17), 그것

---

16) 이재우, 『D. H. 로렌스』,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p. 7, 128.

17) Hilary Simpson은 *D. H. Lawrence and Feminism*, New York: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2, p. 13에서 그 선구를 John Middleton Murry, *Son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31로 보았다. 그러나 머리는 영국의 작가나 비평가는 권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본능의 계승자라고 보면서도, 자유의 충동은 결코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렌스가 전쟁에서 연합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특히 『연인들』에서 영국 사회의 붕괴를 즐겨 묘사하고 조국을 버린 점을 비판한 점에서 반드시 여성주의의 입장에 섰다고 할 수 없다. 본격적인 여성주의 비평은 시몬 드 보바르가 1953년에 쓴 『제2의 성*The Second Sex*』에서 시작되어 케이트 밀렛의 1970년 작

을 소개하거나 반박하는 글들도 국내외에 많이 나왔다.[18] 그러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듯하지만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거의 없다.[19] 특히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일 수 있는 동양, 한국에서 그러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여하튼 이 글은 그러한 연구 상황에서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처음으로 검토하는 글이고 추후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문제의식의 제기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를 피할 수 없지만, 종래 절대적인 아성처럼 굳어진 로렌스의 권위에 대해 불경하게 도전한다는 비난[20]에서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학문 풍토를 위해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로렌스의 아시아관

1) 로렌스의 불교 묘사

앞에서 인용한 로렌스의 동성애에 대한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과

품인『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에 이르는 저술들이 로렌스의 정치적 파시즘과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한 것을 선구로 하여 전개되었다.

18) 이것이 영미에서의 경향을 답습한 것이 아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로렌스에 대한 비판보다도 그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으로 로렌스를 옹호하는 경향이 짙다.

19) 한국에서는 로렌스의 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는 서양에서는 로렌스의 생존 시부터 제기되었고 R. D. Blackmur, *Double Agent*, London: Peter Smith, 1960가 이를 상세히 검토했다. 럿셀은 로렌스가 나치주의에 동조했다고 보았고(Bertrand Russel, *The Autobiography of Bertrand Russel,* vol. II,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73, pp. 10-16, 59-65) 리비스에 의하면 T. S. 엘리엇은 로렌스를 계급차별을 의식한 사람으로 비난했다(F. R. Leavis, *D. H. Lawrence: Novelist,* London: Penguin, 1981, p. 85).

20) 필자는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을 몇 차례나 당했다.

같이 근본적인 것인데, 부처가 그것을 부정했다고 비판한 뒤 로렌스는 "미래로 연결되는 다리는 남근인데 이제 그것이 모두 끝나가고 있다."[21]고 하고, 그 책임이 "우리를 삶과 단절시켰을 뿐"인 부처는 물론 플라톤과 예수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22] 남근숭배적인 성관계의 결혼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로렌스는 불교 등 종교와 철학으로 인해 인간의 근본적인 성적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렌스는 서구문화의 백인 여자는 성적 절정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 흑인 여자는 절정에 이르지만 "진흙같이 지저분하다"고 말한다.[23] 로렌스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또 사실이 그런지 알 수 없으나, 백인 여자보다 흑인 여자가 성에 강하지만 지저분하다는 식의 일반적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로렌스는 동양 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로 인해 백인 여자가 절정에 이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 여자도 불교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로렌스는 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보았는지 아니면 남성의 불감증을 이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남성의 절정은 아예 문제 삼지 않았는지 모른다.

로렌스가 불교에 대해 언급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묵시록』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귀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본래의 기독교나 불교나 플라톤 철학이 모두 귀족주의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로렌스에 의하면 예수상이나 부처상에서 보듯이 "홀로 있을 때, 인간은 기독교인이거나 불교 신자이거나 또는 플라톤주의자가 될 수 있"으나,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는 곧 개인성이 지워지고 계급이 형성된다."[24] 따라서 "영웅에게 경의와 충성

---

21) 『채털리 부인의 연인』 2, p. 320.
22) 같은 책, p. 325.
23) 같은 책, p. 82.
24) D. H. 로렌스, 김명복 역, 『묵시록』, 서울: 나남출판, 1998, p. 31.

을 보여"야 하고 "그때에 너도 영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남자들의 법이다. 아마도 여자들의 법은 다를 것이다."[25]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로렌스가 기독교, 불교, 플라톤을 성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뒤에는 그것들이 귀족주의를 주장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귀족주의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플라톤주의와 달리 기독교와 불교를 과연 귀족주의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를 예수상이나 부처상에서 그들이 혼자 묘사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의 초상이든 혼자 묘사되지 않는가? 더욱이 그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영웅적인 개인성이 없어지고 집단적인 계급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 계급이 생겨났던가? 이러한 로렌스의 불교 등 종교에 대한 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하튼 로렌스가 여자들의 법이 그런 남성들의 귀족주의와 다르다고 한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남성의 지배와 조종에 따른다는 것을 뜻하리라. 이는 플라톤의 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나 기독교의 경전에 남존여비사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이를 로렌스가 그대로 긍정한 것을 뜻한다. 그 점에서 로렌스는 불교나 기독교 및 플라톤의 남성우월주의적 귀족주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녀 성관계는 지배복종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 일환으로 로렌스는 남성의 동성애를 긍정하되 여성의 동성애는 부정했으나, 그중 남성 동성애를 부처가 '깨달아야' 했지만 도리어 부정했다고 유감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래서 로렌스는 실론의 불교 성지를 여행할 때는 "문명화된 현대에서 물질과 기계발달의 위대한 시대에서" 해방되지 못하여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했다.[26]

---

25) 같은 책, p. 32.

26) D. H. 로렌스, 허상문 역,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 서울: 동인, 2006, p. 141.

2) 로렌스의 아시아 묘사

로렌스는 불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불교를 믿기도 하는 동양인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적으로 본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마을 파티에서 주인공인 아론이 인도인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론은 인도 독립은 무의미하고 인도에 대해 영국이 책임을 진다고 말하여 제국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인도인이 "자기네보다 더 역사도 오래되고 어린아이도 아닌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진단 말"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아론은 그런 말에는 "인간 속에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중핵을 파괴하고자 하는 음험하고 흉악한 욕망이 구더기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이유에서 굳어진다.[27] 이 말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앞에서 본 <아론의 지팡이>에서의 묘사와 같이 동양인 전체를 해충으로 말하는 것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 묘사에서 로렌스는 백인을 '고도화된 종'이라고 하고 그들은 '천천히 번식'하는 반면 동양인은 저질의 '구더기' 인종이어서 '해충'처럼 빨리 번식해 개성 없는 무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미워한다. 이처럼 로렌스는 서양우월주의 입장에서 동양인을 무개성적인 대중으로 경멸하는 인종차별주의적인 편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로렌스는 무개성적 대중을 경멸하고 개성적 개인을 귀족으로 존중하면서 이를 성의 경우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인종의 차원에서는 각각 동양인과 서양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로렌스에 의하면 동양인은 성의 만족도가 낮기 마련이다. 이를 로렌스는 앞에서 보았듯이 불교 등의 영향 탓이라고 보기 이전에 인

27) 『아론의 지팡이』, 앞의 책, pp. 41-42.

종적 열등 탓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로렌스는 동양인과 달리 서양인은 그나마 고대 그리스에서 성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예수에 의해 낮아졌다고 본다.

> 그리스인들에게 육체가 아름다운 불꽃을 한 번 깜빡여 주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불을 꺼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전히 끝장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육체가 진정으로 소생하고 있어요.[28]

나아가 로렌스는 "세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노예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며 노예제가 있었던 그리스나 로마가 "훨씬 훌륭한 세계"라고 주장한다.[29] 그리고 노예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이상주의자와 따지기 좋아하는 유태인"과 신사, 자본가, 정치인, 프롤레타리아에 이르는 인간을 든다.[30] 여기에 식민지 인간들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해충으로 본 그들을 로렌스는 당연히 포함시켰으리라.

<무지개>에서도 로렌스는 인도가 영국보다 못하므로 영국인이 "인도에는 정말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 자신이 나타내는 문명을 인도는 정말 필요로 한다. 인도는 도로와 교량, 그리고 그가 한몫 끼어서 이룩할 계몽을 필요로 한다."[31]고 하여 20세기 초 당시 영국의 제국주의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캥거루』에서도 "세계가 불안정하나마 그럭저럭 안정을 유지해 온 것은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32]했지만 식민지는 대영제국에 남아 있고 싶으면 남고 싫으면 나가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

---

28) 『채털리 부인의 연인』, 앞의 책, 2권, p. 143.
29) 『아론의 지팡이』, 앞의 책, p. 439.
30) 같은 책, p. 440.
31) D. H. 로렌스, 황의방 · 진영종 역, 『무지개』 하, 서울: 한길사, 1992, p. 103.
32) 『캥거루』 1, p. 111.

나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의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인도의 민족주의 따위도 단순한 권력에의 의지이며, 독재를 하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이에요. 바라문들은 낡은 카스트의 절대적 권력, 즉 절대적 전제에의 향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편 회교도들은 무력에 의한 전제를 지향하고 있어요. 녀석들의 소망은-다시 채찍질을 하며 수백만 명의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일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백인만이 알 수 있어요.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자유란 웃음거리입니다. 지혜와 권력을 원한다면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민주주의로는 무리입니다.[33]

앞에서 보았듯이 노예제를 주장하는 로렌스로서는, 자신이 말하듯 인도 민족주의자 등이 노예제를 주장한다면, 이를 자신이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하여 찬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인만이 아는 '진정한 자유'를 모른다고 하여 도리어 멸시한다. 즉 동양의 노예제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야만적인 노예제이므로 부당하고, '진정한 자유'를 아는 백인 귀족에 의한 노예제만이 그의 이상이다. 로렌스는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그것과 반대되는 공허한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자유의 공허함을 보면 오싹 소름이 끼친다. 자유와 해방 속에 있는 새로운 혼돈, 어디를 가나 너저분한 방갈로와 잔뜩 쌓여 있는 빈 깡통, 실체가 없고 혼란스러운 이름뿐인 영국 양식. 시드니의 중심부조차도 런던이나 뉴욕의 모조품이며, 핵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자유. '내키는 대로'식의 해방감. 모든

33) 같은 책, p. 163.

> 게 지루하기 짝이 없다. 완전한 자유만큼 무미건조한 게 있을까. … 정신생활도 없고 최고사령관도 없고, 결국 흥이 깨진 무관심뿐이다.[34]

즉 정신적인 귀족이 책임 있게 이끄는 개성적이고 정돈된 자유만이 로렌스의 자유다. 따라서 그는 당시 서양의 제국주의 지배의 "'통치의 신비, 생득적인 자연으로서의 신성한 우월성의 신비" "민주주의와 평등이 부정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남자끼리의 다른 관계(본연의 자세) … 차이와 생득의 우월성을 이해하는 신비, 복종의 기쁨과 신성한 권력의 책무"[35]를 찬양한다. 로렌스의 이러한 동양 식민지 지배 정당화는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 그리고 파시즘 정당화와 일치한다.

3. 로렌스의 아프리카관 및 남아메리카관

1) 로렌스의 아프리카관

이 글의 처음에서 인용한『아론의 지팡이』에서 로렌스는 동양인과 함께 아프리카인을 해충이라고 싫어하면서 아즈텍이나 적색 인디언 등은 '진정한 혈통을 가진 자'로 '두려워 겁낸 적이 없'어서 좋아할 수 있다고 한다.[36]『아론의 지팡이』에는 '진정한 혈통을 가진 자'로 귀족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영국 군부의 중요한 부서를 지휘하고 있다. 우리들 영국인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종이다."[37] 그리고 그 후작 부인은 '위대한 인종'인

---

34) 같은 책, pp. 47-48.
35) 같은 책, p. 196.
36)『아론의 지팡이』, p. 162.
37) 같은 책, p. 289.

아론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고 아론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으로 군림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은 기독교의 낡은 신을 대체한다.

> 물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기독교 시대에는 남자는 주는 사람, 여자는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성체배령(聖體拜領)이다. … 여자에겐 목적이고 혼의 갈구였던 성체 배령은 더럽혀져, 결혼이란 성체배령의 자리가 끝없이 여자를 미치게 만들어 버린다.[38]

그리고 결혼에서 벗어난 아론과 후작부인의 성교는 '안토니오 없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소제목이 붙은 19장에서 '신과 희생물의 일체'로 묘사된다.

> 그녀는 자기 자신의 주문에 흘려,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녀는 무녀처럼 무서운 의식에 완전히 도취되어, 자기를 전부 잊고 몰아지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요컨대 신과 희생물이 일체가 된 것이다.[39]

반면 아론은 "신과 희생물이 일체되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았다. … 그의 영혼만은 떨어져 있었다." 후작부인은 클레오파트라, 아론은 안토니오에 비유되면서도 '안토니오가 없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함은 아론이 성교를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철저히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클라이맥스 따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 불감증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신인 남성의 특징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새로운 신이 된 아론은 영국인이고 그가 희생물로 삼는 클레오파트라는 노예들의 여왕이다. 이러한 신과 희생물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서양과 동양의 관계로 나아간다.

---

38) 같은 책, p. 273.
39) 같은 책, p. 431.

『연인들』에서도 주인공 버킨은 아즈텍 예술과 함께 서아프리카의 목조도 좋아하는데 이는 “일상적 생활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그 이상의 관능적 경험을 원”[40]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나 멕시코 사람과 같은 위험한 정욕에 불”탄다.[41] “원시 예술이 주는 암시는 그들의 피난처고, 내적인 감각의 신비성은 두 사람의 숭배의 목표였다.[42]

이러한 묘사에 대해 머리는 로렌스가 버킨을 이집트인의 화신이자 흑색인종의 화신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 교활한 아프리카 풍 방법으로 얻은 반(反)지성의 관능적 비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비법의 이용은 문자 그대로 타락이며 “우리들 조상이 진흙에서 태어났을 때 버린 인간 이하의 동물성”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43] 그러나 이러한 머리의 비판도 로렌스의 아프리카 신비화 못지않은 아프리카 비하라는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로렌스의 남아메리카관

로렌스는 기독교나 유대교는 물론 불교 등 기존의 종교를 모두 부정하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원시 문명에서 서양문명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인 피와 살에 근거하여 힘과 열정, 관능,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태양, 뱀, 독수리 등과 같은 남성우월주의적인 강력한 ‘어둠의 신들’로부터 나약해빠진 서양 기독교문명을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인『날개 돋친 뱀』에서 로렌스는 멕시코의 참

---

40) D. H. 로렌스, 정상진 역,『연인들』2, 서울: 혜서원, 1992, p. 21.

41) 같은 책, pp. 370-371.

42) 같은 책, p. 371.

43) Alistair Davies, “Context of Reading: the Reception of D. H. Lawrence’s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In Peter Widowson, op. cit., p. 176.

된 해방이란 당시 멕시코 혁명이 추구한 사회주의적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피의 결합이라는 고대의 무서운 결합을 부활시킨 것이며, 이것이 곧 피의 희생을 그렇게도 중대한 생명의 요소로 만든 것이다. 개인의 피는 위대한 피의 존재, 즉 신·민족·종족 등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라고 본다.[44] 앞에서 보았듯이 로렌스는 실론의 불교 성지 등에서와 달리 멕시코에서야 비로소 "문명화된 현대에서 물질과 기계발달의 위대한 시대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45]

> 다만 위대한 별을 가진 남자, 즉 위대한 신성을 가진 남자만이 상반하는 힘을 다시 결합시키고 이를 다시 화합시킨다. … 이것이 그의 위대한 노력이었다. 즉 거대한 모순을 접촉시켜서 다시 화합시킨 일말이다. 이것이 남자가 가진 신력(神力)이다. 이 힘에 의하여 우리는 남자 안에 신을 알아본다.[46]

이 말에 대해 로렌스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인' 복종과 함께 여성의 활력성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보면서 이를 "여성운동이 종종 결하고 있는 '건전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감수성과 생명력'이 전제가 되는 점"을 "현대의 여권 운동가들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하는 태도가 있으나[47] 이해하기 어렵다. 로렌스는 여성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렌스가 표현한 멕시코 인디언은 실제의 인디언이 아니라 그가 상상한 남근숭배의 절대자인 파시스트 인디언이다. 이러한 피의 결합을 불교의 열반과 같다고 보는 로렌스 연구자의 견해[48]는 어처구니없다. 도리어 "섹스와 여성 정복을 추구하는 과정

---

44) D. H. 로렌스, 김재남 옮김, 『날개 돋친 뱀』, 서울: 을유문화사, 1965, p. 428.
45)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 앞의 책, p. 141.
46) 『날개 돋친 뱀』, 앞의 책, p. 429.
47) 조일제, 앞의 책, p. 211.
48) 김명래, 『D. H. Lawrence 연구 인간 완수의 문학』, 서울: 한신문화사, 1991, p. 126.

에서 종교를 이용했다"[49]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의 숭배는 강간의 긍정으로도 나아간다. 로렌스는 단편 「공주」에서 미국 여성을 강간하고 산에 가두는 인디언에게 남성의 우위를 발휘하게 하고 단편 「그런 건 아니다」에서는 자신의 유산을 남긴 여인을 인디언들이 윤간하는 이야기를 한다. 게다가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는 "여자들은 거의 다 레즈비안적인 성향이 있는 것"같은데 "그런 여자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며 그들은 호모보다 더 나쁘다고도 한다.[50] 그 소설의 마지막에서 로렌스는 여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절멸을 선언한다.

> 마지막 진정한 인간이 살해되고 인간들이 모두 온순하게 길들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색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피부색의 인간들이 온순하게 길들면 말이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닐 거에유. 제정신의 뿌리가 불알에 있기 때문이쥬. 하여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모두 함께 거대한 화형식을 치를 거에유. 알다시피 화형식이라는 것이 본래 신앙의 행위를 의미하잖아유? … 서로 상대를 제물로 바치는 거지유.[51]

위 구절에서처럼 정신의 뿌리가 남근에 있다는 것이 로렌스 문학의 본질이다.

---

49) Janet Byrne, *A Genius for Living: The Life of Frieda Lawrence*,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5, p. 304.

50) 『채털리 부인의 연인』, 앞의 책, 2권, p. 81.

51) 같은 책, p. 108.

4.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과 정치관

1) 로렌스의 반민주주의, 반사회주의

앞에서 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로렌스가 항거했다고 보는 "기계와 정신과 지성을 강조하는 서구문화"란 먼저 자본주의 내지 산업주의다. 로렌스에 의하면 19세기 초까지도 "사람들은 거의 본능에 따라 살아갔다. 부친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글을 읽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규정에 따라 갱부들은 친숙한 공동체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묘한 친숙감을 가지고 서로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다."[52] 그러나 로렌스가 말하는 19세기 이전의 사회가 개인주의 이전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 의문이다. 이는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신화'의 관점에서 형식적 법칙에 따라 추상적으로 묘사된 것에 불과하다.[53] 여기서 '신화'라고 함은 당대의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묘사를 뜻한다. 즉 개인과 개인의 대립, 개인과 사회의 대립, 사회와 자연의 대립도 없이 농업 노동에 의해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화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초 영국의 농촌 현실의 묘사가 아니라 상상 속의 유기체적 공동체의 묘사일 뿐이다. 즉 로렌스가 꿈꾼 이상사회일 뿐이다. 여하튼 그것은 곧 배반되었다고 한다.

> 19세기에 인간의 정신을 배반한 것은 바로 추잡함이다. 번영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유산계급과 산업 발전론자가 저지른 커다란 죄과는 노동자들을 추잡하게 만든 것이었다. 천박과 혼돈 그리고 추잡한 환경, 추잡한 이상, 추잡한 종교, 추잡한 주택 그리고 노동자와 고용

52) D. H. 로렌스, 정성호 역, 『로렌스의 성과 사랑』, 서울: 범우사, 1978. p. 22.

53) Graham Holderness, *D. H. Lawrence: History, Ideology and Fiction*, London: Gill & Macmillan, 1982, pp. 174-198.

주 사이의 추잡한 관계 등으로 노동자들을 추락시켜 놓았다.[54]

로렌스는 19세기 이후의 사회, 특히 민주주의를 여러 작품에서 비판한다. 가령 『무지개』마지막에서 "민주주의에선 욕심 많고 추악한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결국 잘 밀고 나가는 사람만이 사람 구실을 하기 때문"이며 "타락한 족속들이나 민주주의를 부르짖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동등하다, 바로 이 생각을 나는 싫어해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란 것을 잘 알아요. 난 국민이란 사람들이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동등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근거로 한 인간 평등은 싫어요. 그것은 더러운 평등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귀족주의를 찬양한다. "돈으로 산 귀족보다 타고난 귀족이 더 좋아요."[55] 여기서 우리는 로렌스가 19세기 산업화를 비판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적 평등사상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므로 부당하고 불평등을 주장하는 귀족주의가 옳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연인들』에도 나온다.

>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새빨간 거짓말인 거요. … 정신에 있어서, 나는 하나의 별이 다른 별과 다른 것처럼 질과 양에서도 다른 사람과 다르단 말이요. 이러한 사실 위에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별개의 것이며 비교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비교하기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보이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평등이 본디부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56]

평등을 거부하는 로렌스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한다.

---

54) 같은 책, p. 123.
55) 『무지개』, 앞의 책, 하권, p. 327.
56) 『연인들』 1, 앞의 책, p. 181.

> 유태인인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이 이론적 사회주의는 대중 속의 권력에의 의지에 호소하고,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유럽의 노동자들을 잔혹할이만큼 상처 입혀 왔다. 그들은 원래 마음이 넓고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57]

로렌스는 사랑, 자유, 평등, 자기희생이라는 것을 낡은 이념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순수한 개체로서의 타고난 위엄을 가진 자와, 섬기는 데 적합한 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58]. 그 "두 개의 영향력의 균형을 깨면 하나가 단지 우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3의 상태, 즉 오합지졸의 상태를 낳는다." 곧 "사람들이 모든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을 때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오합지졸이 생겨난다." 그것이 "정통파 정신의 권력에 대해 군중의 척추신경이 기도한 분별없는 처절한 복수"인 프랑스나 러시아의 혁명이라고 한다.[59]

2) 로렌스의 남근숭배주의, 남성조종주의

로렌스는 흔히 가부장제 사회의 성적 억압을 해방시켰다고 평가되지만 로렌스가 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적 남근숭배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등에도 다음과 같은 남근숭배적 묘사는 끝없이 나온다.

> 참 신기해요! 거기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요. 정말 크네요! 시커멓고 자신만만해 보여요!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
>
> 참 도도하네요! 그리고 당당하고요! 이제 저는 남자들이 왜 그처럼 거만한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워요. 정말로요. 마치 또 다른 존

57) 『캥거루』 2, 앞의 책, p. 48.
58) 같은 책, p. 231.
59) 같은 책, p. 227.

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스러워요.[60]

이처럼 로렌스는 진정한 성해방이 아니라 남근숭배라는 또 하나의 가부장적 성숭배를 주장한다. 이는 남성 자신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근숭배에 의해 비로소 해방된다는 것이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등에 수없이 나오는 성교 장면에서도 그러한 구별은 나온다.

>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의 의지대로 그녀를 다루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는 그녀도 많은 노력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코니는 마치 노예처럼, 육체적인 시중을 드는 노예처럼 수동적으로 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61]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캥거루』의 경우 아론이 12년간 결혼생활에서도 언제나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 기분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62] 이러한 불감증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무기이다. 여기서 성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권력의 수단이 된다. 진정한 성해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짧은 글에서 논의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로렌스가 주장하는 가부장적인 남근숭배나 불감증 남성의 여성 지배는 아닐 것이다.

나아가 여성을 성적 노예로 두는 노예제 사회나 파시즘 사회가 우리의 이상사회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로렌스가 동양사회를 노예제사회로 묘사한 것도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은 여성에 대한 무지와 왜곡 및 편견과 연결되어 있다.

---

60) 같은 책, p. 93.
61) 같은 책, pp. 166-167.
62) 같은 책, p. 73.

즉 동양은 여성이다. 그것도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전제이고 따라서 서양의 지배와 조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배자인 서양인 남성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불감증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동양인 여성을 지배하고 조종한다. 그러나 그 서양도 지금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하니 파괴되어야 하고 귀족제 파시즘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로렌스 문학 내지 사상은 남근숭배주의-파시즘-제국주의-오리엔탈리즘-종말론으로 구성된다.

5. 로렌스를 벗어나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글의 처음에 든 로렌스에 대한 동양적 이해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었고, 로렌스가 비판했다는 서양문화란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이며, 그가 제시한 '소중한 비전'이란 반민주주의와 반사회주의, 파시즘과 제국주의, 귀족주의와 불평등주의, 남근숭배주의와 남근조종주의임을 살펴보았다. 나는 그러한 로렌스의 동양이해에 찬성하지 않고 실상 '파괴적 비전'인 그의 문학을 거부하며 그가 비판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더욱더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로렌스는 1930년에 죽었는데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2차대전이 끝난 뒤인 1950-60년대의 성해방 분위기에 비로소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그때부터 시작된 냉전과 맞물렸다. 한국에서 로렌스를 비롯한 영문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점도 그 즈음이었다. 그러나 로렌스가 현대문명의 성 억압에 대항한 것은 비정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양에서 지배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이기는커녕 도리어 지배세력에 의해 이용되었다.

성을 신성화한 로렌스 우상화는 생물적 성차인 섹스와 섹슈얼리

티가 문제였던 1960년대까지 서양에서 유지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사회적 성차인 젠더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특히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해방의 전도사로 보였던 로렌스가 남성지상주의인 여성억압자, 심지어 파시즘적인 의도로 문화를 신격화한 자로 비판되었다. 그러나 로렌스는 여전히 섹스에 대한 환상을 낳고 섹스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자본주의 성문화의 대가로 군림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러했다.

한편 로렌스는 동양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가진 제국주의자이자 오리엔탈리스트로서 비판되지 못했다. 파시즘적인 여성 억압이 동양에 대한 묘사와 직결되었음이 밝혀지지 못했다. 서양에서도 그러했고 서양을 모방한 동양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사이드 이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이 성행했어도 로렌스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사이드조차 로렌스 이외의 작가들을 크게 심각하지 않은 표현을 들어 오리엔탈리스트로 비판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는, 아니 앞에서 보았듯이 거의 터무니없는 오리엔탈리즘적 표현을 일삼는 로렌스를 제외시키는 것은 그만큼 로렌스가 성의 해방자로 서양문학에서 과도하게 높이 평가된 탓이리라.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은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 식민지해방운동 등이 동시에 진행된 20세기 초에 가장 반동적인 파시즘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자본가, 남성, 식민지배자를 강직한 남근을 가진 귀족 영웅으로 받들면서 그 지배대상인 노동자, 여성, 식민지인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절정의 만족을 주는 냉정한 불감증자로 묘사한다. 그들은 노동자와 식민지에게 돈, 여성에게는 섹스를 주어 만족하게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종래 오리엔탈리즘 논의에서는 그것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절정의 만족을 준다는 식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식민지에 뿌리 깊이 박힌 경우 피지배자인 식민지 남성은 지배자인 제국 남성보다 남근의 왜소성과 무력증을 비롯한 성적인 능력이 못하다는 열등감

을 심어줄 수 있고, 식민지 여성도 성적 상징인 유방이나 둔부 등의 크기는 물론 성적 감흥을 낳는 피부색 등의 열등감 등을 심어줄 수 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의 선진, 풍요, 막강, 강대 등의 이미지와 함께, 성적인 열등감을 결과한다.

그럼에도 그런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기도 한 한국에서의 로렌스 평가는 여전히 대체로 1950-1960년대 영문학 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는 민중문학이나 생태주의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까지 있다. 게다가 로렌스의 불교나 동양에 대한 왜곡된 묘사 또는 서양문명 비판의 반사로서 로렌스가 마치 동양문화를 찬양하거나 그 충실한 표현자인 양 오해되기도 한다. 그 이유의 하나로는 로렌스가 주장하고 숭상한 원시적 남근주의가 성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한국에 뿌리 깊고, 특히 한반도 전통 민속에 남근주의가 뿌리 깊다는 인류학적 보고[63]까지 있어서 한국인의 성에 대한 집착을 그 결과로 당연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 농경사회에서 농경노동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전근대적인 유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한국인의 고유한 민족성이나 문화 운운할 것도, 더욱이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도, 계승하거나 부활시켜야 할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반대로 로렌스가 불교 등 종교에 의한 동양인의 성적 열등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적어도 유교보다는 불교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불교나 유교 등의 전통종교가 성적 욕망의 절제를 가르쳤다고 해도 이는 농경사회의 유산으로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없지 않지만, 도리어 이는 현대사회의 욕망 과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인의 로렌스 독서가 언제부터 성행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 로렌스 독서가 한국인의 과도한 성관심이나 성

63) 서상철, 『무한경쟁이 대한민국을 잠식한다』, 서울: 지호, 2012, p. 231.

불만족도를 야기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오리엔탈리즘이 여타의 수많은 오리엔탈리즘과 함께 한국인의 열등감, 특히 성적 열등감을 조장했을 수도 있다. 로렌스 소설에서 사랑은 섹스, 그것도 강직하고 거대한 남근숭배에 의해 남성이 여성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자기 불감증의 섹스라는 것이 우리의 성적 콤플렉스에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특히 결혼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성을 강요하면서도 성적 환경은 서구 이상으로 개방적이고 상업적인 한국의 특수한 분위기에서 외도가 일상화되고 결혼생활의 성이 더욱더 불만족하게 되고 있는 점에, 로렌스 소설의 성이 언제나 외도를 통해 표현되고 강간까지 긍정한 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에서 연애의 열정과 성적 욕구, 나아가 결혼과 출산까지 억제하게 만들며 성만족도도 낮게 만드는 요인이 육아와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과 입시지옥 및 취업지옥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경쟁과 성장의 과도한 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주의 극복의 방법으로 반민주주의, 귀족주의, 파시즘, 농촌환원주의, 심지어 불교나 유교나 밀교 등의 고대 반문명으로의 회귀를 찬양하게도 한다는 점도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로렌스 남근숭배주의에 대한 어떤 문화적 토대 차원의 긍정이나 부활의 논의도 성적인 자유와 평등의 확보에 위험하다. 로렌스의 어설픈 모방이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예술의 차원에서도 본능과 생명의 예찬이라는 미명으로 횡행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고대 신화의 재해석을 로렌스처럼 남근숭배의 생명이나 본능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리어 그것의 부활이 성행한 19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남녀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로렌스의 남근숭배주의, 민주주의적 자치를 거부하는 로렌스의 파시즘, 세계평화주의를 거부하는

로렌스의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 자연과 우주를 파괴하는 로렌스의 절멸적 파괴주의가 야만적 성의 절정의 예찬이라는 미명으로 계속 은폐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로렌스를 흔히들 인간의 육체를 진실한 생명으로 소생시킨 작가 등으로, 특히 동양적 작가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로서 허위의 오리엔탈리즘과 파시즘, 남근숭배주의와 반민주주의를 조장할 뿐이다. 로렌스가 말하는 성욕에 대한 과도한 긍정은 과도한 부정만큼이나 위험하다. 특히 그의 남근숭배주의는 남녀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배치되고 남근숭배에서 비롯되는 파시즘과 제국주의 및 오리엔탈리즘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로렌스의 성은 섹스광적인 남성 중심의 지배적 파시즘이자 그 남성-서양 중심의 섹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고문헌

D. H. 로렌스, 이인규 역,『채털리 부인의 연인』, 서울: 민음사, 2003.
D. H. 로렌스, 김명복 역,『묵시록』, 서울: 나남출판, 1998.
D. H. 로렌스, 허상문 역,『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 서울: 동인, 2006.
D. H. 로렌스, 김진욱 역,『아론의 지팡이』, 서울: 생각하는백성, 1996.
D. H. 로렌스, 황의방 · 진영종 역,『무지개』, 서울: 한길사, 1992.
D. H. 로렌스, 김진욱 역,『캥거루』, 서울: 백성, 1999.
D. H. 로렌스, 정성호 역,『로렌스의 성과 사랑』, 서울: 범우사, 1978.
D. H. 로렌스, 정상진 역,『연인들』, 서울: 혜서원, 1992.
D. H. 로렌스, 김재남 역,『날개 돋친 뱀』, 서울: 을유문화사, 1965.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석지현,『밀교』, 서울: 현암사, 1981.

조일제, 『D. D. 로렌스 문학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5.
강정석, 『D. H. 로렌스의 문학사상』,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2002.
이재우, 『D. H. 로렌스』,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서상철, 『무한경쟁이 대한민국을 잠식한다』, 서울: 지호, 2012.
조명래, 『D. H. Lawrence 연구 인간 완수의 문학』, 서울: 한신문화사, 1991.
김인수, 'D. H. Lawrence와 Christianity,' 『경상대 논문집(인문 사회)』 19, 경상대학교, 1980, pp. 43-54.
Graham Holderness, *D. H. Lawrence: History, Ideology and Fiction*, London: Gill & Macmillan, 1982.
Peter Widdowson ed., *D. H. Lawrence*, London: Longman, 1992.
Peter Scheckner, *Class, Politics and the Individual : A Study of the Major Works of D. H. Lawrence*, New York: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1985.
Hilary Simpson, *D. H. Lawrence and Feminism*, New York: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2.
Janet Byrne, *A Genius for Living: The Life of Frieda Lawrence*,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5.
John Middleton Murry, *Son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31.
R. D. Blackmur, *Double Agent,* London: Peter Smith, 1960.
Bertrand Russel, *The Autobiography of Bertrand Russel*, vol. II,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73.
F. R. Leavis, *D. H. Lawrence: Novelist*, London: Penguin, 1981.
Alistair Davies, "Context of Reading: the Reception of D. H. Lawrence's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In Peter Widdowson ed., *D. H. Lawrence*, London: Longman, 1992.

D. H. Lawrence's Orientalism

Park, Hong-Kyu

Some scholars said that D. H. Lawrence was influenced by Orient religions and thoughts, but he misunderstood them. Western culture that D. H. Lawrence criticized was democracy and socialism and his new vision was anti-democracy and anti-socialism, fascism and imperialism. In this paper, I criticise such thoughts and literature of D. H. Lawrence and refuse his destructive vision. Until now, such criticism was not in west and east. D. H. Lawrence's orientalism should be criticised as a reactionary fascism of 20th century.

Key words: D. H. Lawrence, Orientalism, Buddhism, imperialism, Fascism

박홍규
소속: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주소: 경북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234-6
전화번호: 053-817-6396
전자우편: hkpark@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07 월 03 일 투고하여
2013년 09 월 01 일 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 월 31 일 게재 확정함.